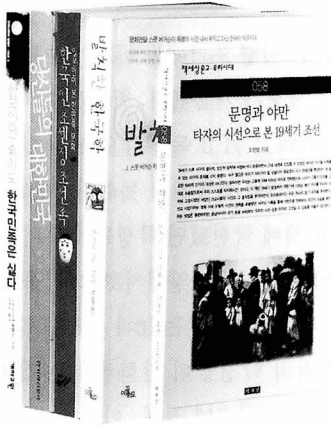


# 이방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민족주의의 왕국

외국인들의 한국 관찰기 줄이어



월드컵이 열리는 시점에 맞춰 외국인이 쓴 한국 관련서가 부쩍 늘었다. 월드컵 기간 동안 한국은 세계인의 눈에 알몸으로 드러난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느낄 것인지 관심도 높아진다. 요즘 나오는 외국인의 한국 관찰기들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것들이다.

외국인의 한국 관찰기들은 보통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평범하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문화적 차이가 큰 외국인의 눈에는 아주 특별하게 보인다. 그 특별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면 찬탄이 터지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비난이 쏟아진다.

## 깊이와 넓이 두루 갖춘 책도 있어

이런 책들은 IMF 때 많이 나왔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이케하라 마모무) 등 그 말초적인 제목을 보기만 해도 무슨 듣기 싫은 소리가 있을지 겁나는 책들이 우리 내부의 자성적 분위기 속에 무수히 읽혔다. 이 책들은 널리 읽혔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고개 끄덕여지는 건 잠깐이고 결국은 반발심이 생긴다. 《나는 한국이 두렵다》(제프리 존스, 이상 중앙M&B) 같이 한국인의 저력을 말한다며, “성미가 급한 한국 사람들은 스피디한 요즘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식의 성의 없는 아부성 발언을 담고 있었을 뿐이다.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를 관찰한 이들의 지식과 체험이 깊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외국인 필자들이 한국 관련서를 내고 있어 고무적이다. 오솔로대 한국학 교수인 박노자의 《당신들의 대한민국》(한겨레신문사)이 대표적이다. 러시아계 귀화 한국인인 지은이는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 한국어 구사능력, 한문학에 대한 지식 등을 놓고 볼 때 한국의 일류 지식인이라 할 만하다. 그런 그가 두세 걸음 떨어져 한국사회의 전근대적 관행들을 통박하는 것이 이 책이다. 그는 한국인들의 국가주의, 지역주의, 연고주의, 인종주의 등 치부를 들춰내는데, 그 죄를 아무리 ‘언론’과 ‘기업’에 떠넘겨도 앙금처럼 남아 읽는 이를 괴롭힌다. 이는 지은이의, 마치 운동권 학생들의 그것을 떠올리게 할 만큼 순수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발칙한 한국학》(J. 스콧 버거슨, 주윤정 외, 이꼴리오)도 귀기울여 경청할 만한 한국 비판서다. 이 책은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모르는 한국을 보여준다. 미국인 저자인 버거슨은 자칭 ‘문화건달’로, 한국에 살며 1인 잡지 《버그(Bug)》를 만들고 있는데, 인사동의 값싼 여관에 장기투숙하며 밤낮 기묘하고 색다른 뭔가를 꾸미는 사람이다. 한국에 대해 신비한 사실을 기록한 옛날 책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바라본 이상한 한국, 사라져가는 한국의 장인들 등을 에세이, 가상 시나리오, 인터뷰, 문화탐방, 온라인 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 한국 민족주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 높여

박노자의 책이 외국인의 한국 읽기가 획득한 깊이를 보여준다면, 버거슨의 책은 ‘독특한

나라’ 한국에 대해서 바깥세계가 매우 폭넓게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제 한국은 외국인에게 단순히 충고나 듣는 단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러기엔 이른 것 같다. 이 두 책의 공통 주제가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민족주의는 그 억압성과 폐쇄성 때문에 비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는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이토 준코, 김혜숙, 개마고원)라는 책도 나왔다. 지은이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일본의 3류 민족주의를 배워서 오늘날 이 모양이 됐다며 천박하고 맹목적인 배타주의로 떨어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한 한국학생이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그 한국학생이 일본인에게 “일본인은 천황을 가장 존경하나요? 그럼, 미야자와 총리를 존경하나요?” 하고 물어봤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하는 부분을 읽으면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 외에 일본인 사회학자가 재외국 한국인에 대한 한국의 무관심을 꼬집은 《한국인 조센징 조선족》(카세타니 토모오, 범우사), 한국문화와 한국에서의 삶이 지니는 매력을 힘차게 노래한 《호랑이 나라》(데이비드 리치, 늘봄), 한국에 2년 동안 유학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이 쓴 《왕 샤오링의 한국 리포트》(왕 샤오링, 가람기획) 등이 나와 서가를 채우고 있다. 그 전에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해왔는지 탐구한 《문명과 야만—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조현범, 책세상),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신복룡, 풀빛) 등을 먼저 읽어볼 필요도 있다. —강성민기자